

여수시, 2019년 저탄소생활

실천 전국대회 개최지 선정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관계자 1700여명 참여

여수시가 '2019년 저탄소생활 실천 전국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올해 12회째를 맞는다.

시는 본 행사 유치를 목표로 지난 6월 12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정 후 관리 히에 전국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마쳤다.

저탄소생활 실천 전국대회는 11월 중에 29일간에 걸쳐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전국 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를 비롯해 그린리더, 상급사(컨설턴트), 유관기관·기업·학생·시민 등 17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선정결과 여수시는 국내 5천만을 확보함은 물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개회식을 포함하여 저탄소생활 경연대회와 함께 다양한 체험·전시·홍보관 등이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 선포식이 계획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생활 실천 전국대회를 빙::
준비하여 2022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범국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순천시, '전국 빅데이터 공모전' 최우수상

순천방문의 해와 연계 관광빅데이터 분석 좋은 평가



순천시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 지원관리원이 최근 주최한 제4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기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최종 발표대회에서 순천시는 '2019년

순천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인 '혜안'을 통해 뉴스 및 SNS 노출·건수와 관광객 수의 연관관계를 분석했고 키워드 검색건수가 일부 관광지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관광 정책추진 등 홍보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혜안'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해결해주는 상황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행정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사업 최종 선정

원도심 활성화

고흥군이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사업' 공모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동요작가 목일신 선생을 제조명하고 고흥동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구 군청까지 총 400m구간에 목일신 선생 작품 관련 조형물, 벽화사업 등을 설치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총 사업비 1억 4천만원(재단지원 7천만원, 군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따르릉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이며, 기획단계부터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시켜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문화예술 자원을 특화하고, 문화예술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양시 청년인턴 36명 행정경험 쌓는다

신청자 226명 몰려…청년 진로탐색 기회 제공



광양시 청년인턴 36명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지역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을 제공하여 공직

사회생활 경험 및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통사심을 함양시키고, 진로 탐색 기회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226명이 신청하여 총 6.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당초 3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던 청년 행정인턴은 최종 3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는 6월 26일 1차 심사인 서류전형을 거쳐 2차 심사 대상 225명을 확정하고, 6월 27일 합격자 214명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실시했다.

이날 최종 선정된 36명의 청년 행정인턴은 22개 부서에 배치되어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행정경험을 쌓게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신청에 청년들의 일 경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뛰어운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최대한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무더위쉼터 내 냉방기 냉매 충전 및 청소 지원

설치된 지 4년 이상 된 노후 냉방기 대상

보성군은 2일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411개소에 설치된 냉방기의 냉매 점검 및 청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고령자,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을 비롯한 평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휴식시설이다. 군은 무더위쉼터 점검 조사결과 설치된 지 4년 이

상 된 노후 냉방기의 냉매 충전 및 필터 청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회 미 추진 개소는 연차별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염 특보 발효 시 미을 방송 및 기누방송 등 무더위쉼터 홍보와 동시에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재난안전사고 Zero화 사업 등 무더위쉼터 연계 프로

그램으로 무더위쉼터 이용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전기료 지원에만 그쳤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여어친 냉매 충전 및 청소 지원 등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행정을 펼쳐 여름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곡성군,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올해 말 목표 45억 들여 추진 가속화

곡성군 섬진강변이 옥의 티를 걷어내고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변 국도 17호선 구간은 섬진강 치마을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압록유원지 등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밀집해있다. 하지만 강변에 산재된 전신주와 전선으로 인해 섬진강의 수려한 경관이 저해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근기 곡성군수는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사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섬진강변에 늘어져 있는 전신들을 지중화함으로써 안전은 물론 섬진강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곡성군은 작년 8월 한국전력공사 공모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올 2월에는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45억의 사업비는 곡성군과 한국전력공사가 50%씩 분담한다. 사업을 통해 국도 17호선 오곡정마을 앞 1.5km와 암록미을 앞 0.4km 구간의 전신주와 전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섬진강 치마을 증기기관차,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기실 때 더욱 아름다운 섬진강을 만나게 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구례군, 2019 하반기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

구례군은 2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하 '귀농·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및 신축 분야 7천5백만원 한도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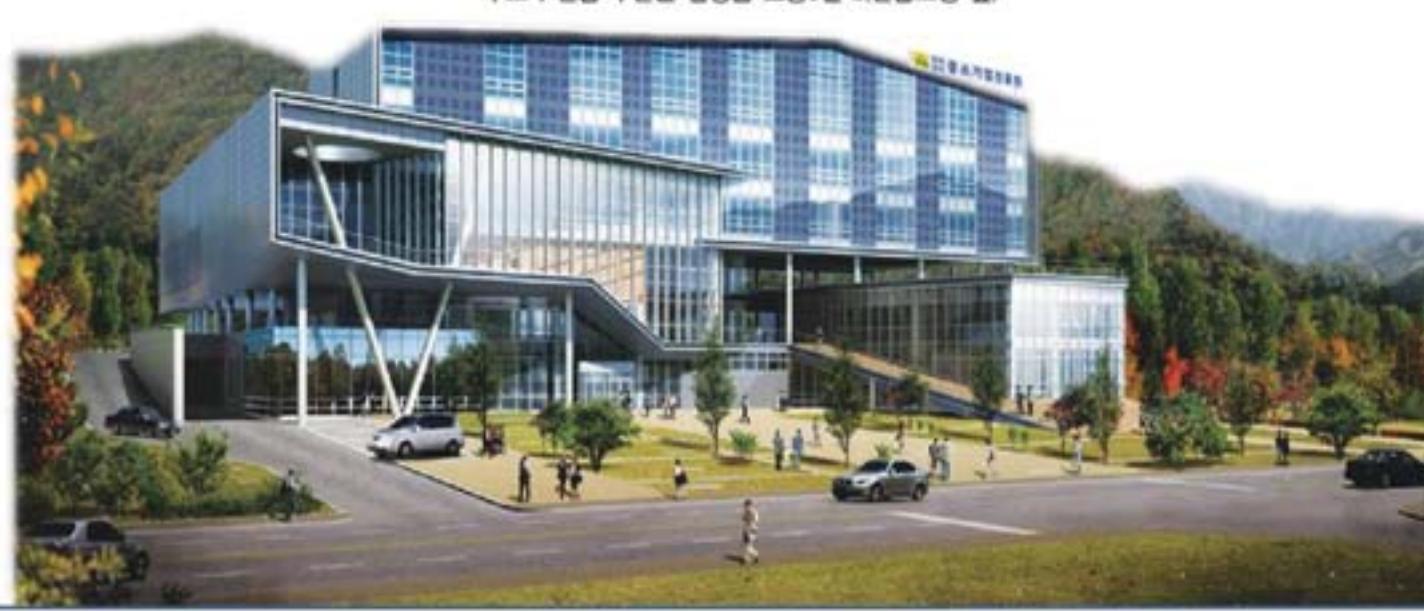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으로 구례에 정착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구례로 아주 예정인 도시민이며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례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전청
- 구체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청 상담 및 지원 법률 자문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청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